

총설

# 농촌주거환경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이 길 순  
신구전문대학 가정과

## Literature Review on the Rural Housing Environment: Trends and Tasks

Lee, Kilsoo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Shingu Junior College

### I. 서 론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농촌도 과거에 비하여 발전하였으나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비중감소, 농업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소득의 상대적 빈곤 등으로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특히 농촌주거환경은 도시와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많은 관심이 농촌을 살기좋은 정주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연구에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농촌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종합·고찰하여 첫째, 이들을 시기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둘째, 연구결과들을 종합분석하여 농촌주거환경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셋째, 근대화에 따른 농촌주거환경 변화의 방향을 분석하고 넷째,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주거환경연구의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발전을 도모하여, 아울러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정책결정에 종합적인 기초자료로 제공함

으로 궁극적으로 농촌주거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가주택<sup>1)</sup> 및 취락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방법으로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한 연구는 문들은 주택에 관한 문헌목록<sup>2)</sup>을 기초로 하고 각 논문에 수록된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국내 석·박사논문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각 기관의 연구보고서이다.

주거<sup>3)</sup>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 공간구성원리를 지닌 주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간특성, 장기간의 평면변화와 마을공간의 형성배경이나 구성원리에 대한 住居史의 연구에 중점을 둔 것과 근대주택의 공간적 특성과 공간구성 원리를 밝히고 거주자의 주생활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주거계획에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주거계획적 연구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최종 목표에 맞추어 과거는 현재를 잘 이해하기 위해 고려하며 현재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농가주택을 추구한다는

\* 편집자주 : 본 주제는 농촌생활과학연구에 관한 총설로 식생활분야(제2권)에 이은 주생활분야에 대한 것이며, 다른 분야에 대한 총설도 계속 게재될 계획입니다.

- 1) 기존의 연구에서 구체적 정의없이 농촌주택이나 농가주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농촌주택은 도시와 대비되는 지역 개념을 가진 지역이나 환경을 포함하는 용어이고, 농가주택은 농업이라는 직업적 의미가 포함된다. 농업인구의 감소나 농촌내 비농업인구의 추세를 고려하면 여기서 다른 연구들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수용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농가주택」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본다.
- 2) 대한주택공사, 1986, 주택연구종합목록.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설계연구실편, 1986, 건축관계 논문·잡지 목록 모음집.  
한샘, 1987, 농촌주거환경 조사연구보고서,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주거문제연구회, 1990, 주거학 석·박사 논문 목록집.  
농촌생활과학회, 1990, 농촌생활과학 제 1 권.
- 3) 인간의 생활을 담는 주거환경은 크게 주택과 주거의 두가지 개념으로 분리된다. 주택이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서의 구조물을 일컫는데 반해 주거는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들의 심리적 내면까지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환경이다. (윤복자, 1992, 생활과학 연구방향을 위한 세미나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영양개선연수원, P.5)

관점에서 주거사 부분은 농가주택의 전형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종합해 보고 주거계획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농촌주거환경 연구의 동향

### 1. 시기별·분야별 동향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1898년 '조선가옥의話'라는 연구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200여편<sup>4)</sup>이 된다.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의 분류는 8개분야(대한주택공사, 1986), 15개 분야(한샘, 1987), 6개 분야(주거문제연구회, 1990)로 서로 상이한데 여기서는 농촌주거환경이라는 특별한 대상에 대한 연구들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7개

분야로 나누었다.

한편의 논문이 주거사 쪽인가 주거계획 쪽인가 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짓기 어려운데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관심을 갖고 전통성을 발견하는데 목적을 둔 것은 주거사 분야로, 현재상태와 미래계획에 관심이 있는 것은 계획분야로 분류하였다.

공간계획 및 개량에 분류된 논문들은 대체로 주택전체를 다룬 것이어서 대부분 부엌과 부속사공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일종의 경향이라 판단되므로 별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또 취락구조만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별도로 분류하고 취락구조와 주택공간을 함께 다룬 연구들은 공간계획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 밖에 조립주택, 외장색채, 가구 등에 관한 극소수의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1> 농촌주택 연구의 동향

분 야		년 도	(%)						계
			1898 ~69	1970 ~74	1975 ~79	1980 ~84	1985 ~89	1990 ~	
주 거 사 (민가)			19	8	8	18	6	1	60 (29.3)
주 거 환 경 계 획	공간계획 및 개량		1	10	13	18	6	1	71 (34.6)
	부 엌			1	1	1	3	4	10 (4.9)
	부속사 및 작업공간					3	1		4 (2.0)
	실 내 환 경		1	3	4	2		4	14 (6.8)
	소 계		2	14	18	24	30	12	100 (48.8)
취 락 구 조			2	6	3	11	3	6	31 (15.1)
기 타			1	2	3	4	3	1	14 (6.8)
계			24 (4.7)	30 (14.6)	32 (15.6)	57 (27.8)	42 (20.5)	20 (9.8)	205 (100)

4) 본 연구에서는 205편으로 집계됐지만 다소 누락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시기별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70년 이전의 연구들은 민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농촌주거 환경에 대해 본격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 이후로 이 시기에는 연구의 량도 증가하였지만 주거계획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많아지며 연구분야가 광범위해진다. 이는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 사업으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주택개량의 필요성에 따라 주거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주택구성과 평면 및 취락구조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80년대에는 농가주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서 연구의 량도 대폭 증가했지만 연구대상이 주택전체에서 부엌이나 부속사가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등 보다 세분화되며 각 분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0년대는 전반적 동향을 살펴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나 주거계획 분야의 연구들이 안방공간(고도임, 1991), 의례공간(이유미, 1990), 부엌공간(한샘, 1990), 목욕공간(정문영, 1992) 등 특정의 공간을 중심으로 밀도있는 연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마을공간구성이나 생활권 설정 등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농간의 격차를 없애며 농촌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의 주택문제보다는 농촌공간 전체적인 문제의 접근이 더 절실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분야별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민가분야가 60편, 주거계획분야가 100편, 취락에 관한 연구가 30편으로 1970년 이전에는 민가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1970년 이후에는 계획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취락보다는 단위주택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했다.

민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고유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농촌주택에서 우리의 전통성을 발견하여 산업화·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환경문화의 변질을 막고 전통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연구의 지속성에 비하면 연구 결과가 미흡한데 그 이유는 민가 연구들이 민가공간의 본질적 법칙성이나 구조적 논리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깊이있게 전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만 평면적으로 설명하여 민가유형을 밝

히는데 그치고 있가 때문으로(조성기, 1980) 지적되고 있다.

공간계획 및 개량분야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주택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의 배치, 규모, 구조, 방수, 시설, 생활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고 있다.

1970년대 초의 연구들은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농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괄적·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75년 이후에는 전반부의 연구경향이 지속되면서 점차 주택개량을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 모델이 연구 제안 되었다. 1980년대에는 주택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량된 주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다. 이들은 공간변화내용 및 공간이용방법의 분석을 통해 농가주택의 변화방향을 연구하며 바람직한 개량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전체공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공간의 일부를 확대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농가주택의 변화의 원리를 통찰하고 종합적 접근방법을 시도하거나, 연구결과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는 논문이 등장하고 있다.

부엌은 공간계획분야의 논문에서도 부분적으로 거의 다루어지는 공간인데 1973년(지순)부터 독립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소수이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엌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대적 주거기준 및 설비에 비추어 볼 때 농가부엌이 주택의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상대적 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변화요구가 많으며, 농촌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필요해진 여성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부엌의 개량을 통한 가사노동시간 절약 및 편리화 도모라는 현실적 필요때문으로 생각된다.

초기의 연구들은 부엌실태조사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후반에 오면서 부엌의 변화내용 및 방향을 연구하는 경향으로 바뀌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도시와는 선별되는 농촌에 맞는 부엌유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부엌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부엌은 여성에게 친근한 공간이기도 하고 생활인으로서 변화의 요구를 보다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이 생활에 대응하여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엌공간에서의 생활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연구는 보다 세밀하고 생활에 근접한 것이어서 연구결과와 실제적 활용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부속사 및 작업공간도 주택공간계획분야에서 일부분으로 다루어지는데 규모와 배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개량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1980년대에 개별적 연구주제로 4편이 연구되었는데 이들은 규모 및 배치는 물론 재료, 구조, 향 등의 실태와 변화방향을 상세하게 연구하였다.

실내환경분야는 연구량이 적을 뿐만아니라 온도를 포함한 열환경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분야의 학자들이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기 보다 다른 분야가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비해 실내환경은 자연과학적 접근으로 발견된 일반적 원리를 농촌주택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취락에 대한 연구는 1967년(오홍철)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30여편에 이르고 있다.

1970년대에는 주로 취락의 규모, 구대시설, 생활 시설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논문이 주류를 이루며, 1980년대 초에는 농촌취락구조개선안을 제시하는 논문이 대부분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1980년대 초에 다루어졌던 농촌취락구조 개선안과 맥을 같이 하지만 단위취락 보다는 여러 취락이 단계적,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보다 종합적인 취락 구조 개선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취락구성의 원리와 본질적 특성을 발견하고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른 취락의 변화과정 및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까지 성급히 진행된 취락구조개선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보다 적합한 취락계획의 기준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 밖에 기타로 분류된 것은 조립주택부품개발, 외장색채, 가구이용 등에 대한 연구들인데 모두 한편 정도의 연구로 다음의 연구와 연결되지 않았으나 가구에 관한 연구는 1985년에 시작되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연구방법의 동향

과학적 연구과정<sup>5)</sup>에서 연구방법이란 『표본을 추출하고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해서 요약정리』하는 과정에 해당되는데, 방법론에서는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 간주하여 여러가지로 분류<sup>6)</sup>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논문들은 대부분 연구방향에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자료처리 및 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주거환경연구는 공간과 생활의 대응관계의 다양성 때문에 조사대상을 거의 비확률표집의 일종인 편의표집 또는 임의표집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을 기술하는데는 단순히 조사대상지역만 서술하거나, '연구목적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연구자의 판단만을 제시하는 논문도 상당수 있으나 최근에 작성된 논문에서는 조사대상지역의 선정조건이나 기준을 자세히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방법은 민가연구 일부와 실내환경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구가 현지조사방법<sup>7)</sup>을 채용

5) 홍두승, 1988,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p.22.

6) 김경동, 이은숙, 1989, 사회조사연구방법, 법문사 : 질적연구(현지연구, 민속연구방법), 수량적 연구(표본조사법, 질문지법, 관찰연구, 실험연구, 문헌연구); 김해동, 1987, 조사방법론, 법문사 : 탐색조사, 현지조사, 실험조사; 차배근, 1986, 사회과학연구방법, 세영사 : 문헌연구, 실증연구(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홍두승, 앞의 책 : 실험연구, 참여관찰연구, 내용분석, 조사연구

7) 대부분 연구에서는 「조사방법」이라는 용어를 쓰며 극소수의 연구에서는 「현지연구」라는 용어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연구」라는 용어가 대량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survey research)와 달리 심층적 조사를 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의 방법에는 「조사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와 차이가 없었다. 「현지조사」방법은 문헌연구나 실험에 대응하는 현지에서 직접관찰 조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조사연구가 대량의 표본을 추출하는, 즉 연구범위의 크기와 대표성에 중점을 두고 광범위한 연구를 하는데 반해서 연구의 깊이에 중점을 두며 직접적인 관찰 및 측정을 더 강조한다(김해동, 앞의 책, p.85).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이 분야에서 수행한 방법이 조사연구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조사연구방법과는 구별되므로 현지조사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선정된 지역에 가서 농가주택의 배치나 평면 등 물리적 현황을 촬영하거나 실측하여 도면으로 기록하고 주거환경 내외에서의 생활행위를 관찰하여 기록하거나, 주택의 변경사항, 주생활내용, 주거에 대한 요구·불만 등을 표준화 또는 비표준화된 질문으로 면접조사하고 있다.

주거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 즉 민가평면의 변화과정(주남철, 1970; 김정기, 1971)이나 지방적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조성기, 1983) 등은 기존의 연구문헌에 의존하여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현존의 전형적 농가주택에서 민가의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논문(권건우, 1985; 서경태, 1986; 박경호, 1990 등)들은 계획연구와 같은 현지조사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실내환경에 관한 연구는 실험연구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거나(김정수, 1973; 신문철, 1975; 손장렬 외, 1986) 문헌을 종합하여 개선안을 제시(이광노, 1977)하거나, 실내환경실태와 이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이경희, 1975; 박태환, 1985)이나 행위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조사대상 사례수, 즉 표본수는 취락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2개 취락을 조사하고 있으며,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표본주택을 11호(이원, 1988)에서 1422호(최찬환, 1986)까지 다양하게 조사하였는데 대개 30~100호를 조사하고 있었다.

표본수의 증가가 반드시 표집오차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질적 접근방법에서는 소수의 사례만으로도 대표성이 인정되고 있고 자료의 신뢰도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나 표본수가 너무 적을 때는 대표성과 보편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임의추출로 선정된 소수표본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특별한 현상을 기술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가 한정되므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촬영·실측·관찰된 물리적 공간 자료에 대해 도면을 분석하여 특징을 요약·정리하고 규모, 변경사례, 거주인의 의식 등은 평균, 빈도, 백분율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상의 방법적 동향으로 볼 때 농촌주거환경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현상의 설명에 있지 않고 원리나 규칙성을 발견하여 주거계획에 도입하는데 있으므로 대표성과 보편성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私的 입장을 배제시키며 승意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통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III. 연구내용의 분석

#### 1. 전통적인 농촌주거환경

그동안 민가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대다수의 주택은 대체로 조선말기에 세워진 농가주택이므로 농가주택의 전통적인 특성은 주거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민가연구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다.

대개의 농촌취락은 경작지, 연료, 음료수의 공급, 수해관계, 풍수사상, 동족의 단결 혹은 상호구제의 이유에서 북쪽에 산을 두고 남쪽이 넓게 터진 北高南低의 산기슭이나 평지에 위치하며 散村은 드물고 集村이 대부분이다(조성기, 1979).

취락공간은 <그림 1>과 같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겨울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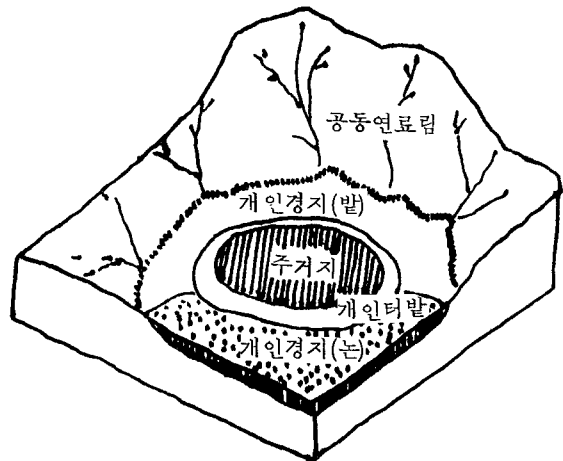


그림 1. 마을의 전형적인 공간이용 형태<sup>8)</sup>

8) 한필원, 1991, P.71에서 재인용.

료립 또는 묘지를 쓰는데 이용하며, 주거지 가까이 터밭을 두고, 주거지 전면에 논을 두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이용하였다(김홍식, 1975).

취락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택단위가 지세에 맞추어 위치하면서 마을공간의 중심요소를 연결하는 도로인 안길이 형성된다. 새길은 안길이 형성된 후 주거로의 전면진입 방식을 중시하면서(한필원, 이광노, 1990) 각 주거단위를 향하는 길이 교차하지 않도록 나무가지의 연병처럼 연결하여 주택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형성되었다(조성기, 1975).

농가주택은 건물과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안방과 마루, 건너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채와 거주용 방과 농작업에 필요한 비주거기능이 복합된 아랫채<sup>9)</sup>와 부속사 건물로 분리 구성되어 있다. 마당은 개인의 농작업 공간인 안마당과 공동작업 공간인 바깥마당, 그리고 여성 공간으로 여겨지는 폐쇄적인 뒷마당으로 구성된다(이재우, 1986).

공간의 배치는 대지내의 지세의 흐름으로 보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안채를 먼저 배치하고, 안채의 앞쪽에 안마당을 두고 안마당의 바깥쪽에 아랫채와 부속사를 배치한다(박경호, 1990).

안채를 기준으로 한 평면형태는 경제형편과 지위에 영향을 받기는 하나 대체로 지역에 따라 일반화된 보편적 유형<sup>11)</sup>이 있으며, 함경도지방과 제주도지방형은 겹집이나 그외 지역은 7자 또는 1자 홑집유형이다(주남철, 1986).

주택의 각 실의 출입문은 마당을 향해 개방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텃마루나 마루를 통해 직접 출입하도록 되어있다(이상정, 1988).

농가주택의 건축적 구조는 목조가 구식인데 산지가 75%인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으로 목재를 구하기 쉽기는 하나 큰 내부공간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택공간은 일반적으로 좁고 방수도 적었다. 지붕은 우진각 지붕으로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짚이나 새로 지붕을 이었다. 벽은 기둥과 기둥사이를 가시새와 기지를 얹어 흙을 칠한 흙벽으로 건물내부는 회칠 또는 벽지를 바르고, 외부는 회칠을 하였다(김정기, 1971).

바닥은 온돌, 마루, 흙바닥 세가지가 있었다. 사람이 거처하는 곳은 모두 온돌구조인데, 온돌은 북사난방방식으로 현대 난방에서도 가장 쾌적한 실내기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아궁이와 굴뚝을 통해 손실되는 열량이 많아 열효율은 약 30%라고 한다(손장렬, 안병욱, 1986). 대청은 우물마루로 하고 텃마루는 널마루로 하였으며 흙바닥은 지반을 잘 다져 공고히 한 것으로 부엌바닥이나 부속사의 바닥으로 축조되었다.

이러한 농촌주거환경의 특성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사회문화적 이상을 투사하여 농민들 자신의 기술로 그들의 삶을 담아 온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생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변화를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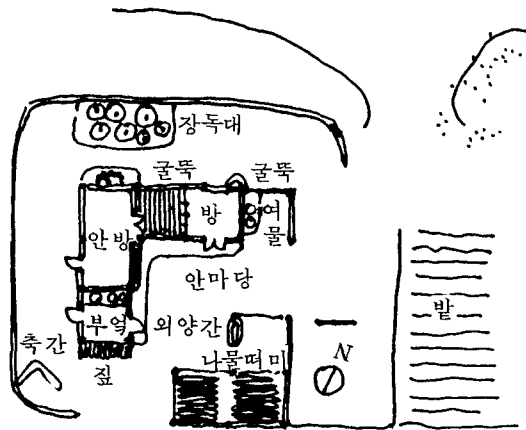


그림 2. 경기도지방의 농가주택<sup>10)</sup>

9) 지역이나 대지내 위치에 따라 사랑채, 바깥채, 문간채, 행랑채 등으로 불리운다.

10) 주남철, 1986, P.80 재인용

11) 김정기(1971) : 북부형, 서부형, 중부형, 남부형, 제주도형으로 분류  
 김홍식(1982) : 외통집, 양통집(태백산역, 동해안, 함경도), 곱은자집(중부지방), 겹집(남도지방)으로 분류  
 주남철(1986) : 함경도지방형, 평안도지방형, 중부지방형, 서울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도지방형으로 분류

## 2. 농촌주거환경의 문제점과 실태

도시주택이 산업화에 따른 여러가지 변화를 급속히 수용하며 변화하는데 비해 농가주택은 변화의 속도가 이에 못 미치고 있어(최찬환, 1986) 아직도 농가주택의 상당수는 전통적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전통적 농가주택은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환경 및 기술수준을 오랜 생활의 경험으로 조화시켜 산업화 이전 시대의 주거에 대한 요구를 지혜롭게 해결해 왔지만, 재료 및 구조기술이 향상되며 생활양식이 변화된 현대의 주거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의 전통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산업화에 따른 기술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요구와 주거기준의 변화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 본질적 특성이야말로 급속히 받아들인 서구식 주거가 우리의 주생활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가주택과 취락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실태<sup>12)</sup>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주택은 가족노동 중심의 농업성격상 주택내부에 생산활동에 필요한 농작업공간이 함께 있다. 따라서 퇴비사,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의 서식, 농작업에서 생기는 먼지 등이 마당과 부속사로부터 주거공간에 침해하므로 쾌적하고 위생적이어서 하는 주거기능이 방해받게 된다.

주거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가주택에서 작업공간을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취락구조사업으로 공동작업공간이 있는 취락의 경우도 77.3%(박병길, 1986)가 여전히 마당을 농작업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동마당이나 공동축사 등이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남련, 1987)으로 미루어

아직 대부분의 농가주택은 여전히 생산과 거주가 미분화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택규모가 협소하고 방수가 부족하다. 전통적 주택은 재료와 구조의 한계로 주택의 규모가 작으며 이상적인 방의 크기도 8자×7자(2.4m)(신영훈, 1986) 정도로 작은 편이다. 조사에 의하면(최찬환, 1986) 농가호당 평균 건물면적은 18.5평인데 여기에는 부속사가 4.55평이 포함된 것이므로 거주 가능 공간은 약 14평이 되며, 1인당 약 2.4평이 된다. 평균 보유 방수는 2.9개로 방당 2명이 거주하고 있다.

건축계획상 1인당 3.5~4.5평이 적정하며 4인가구의 경우 최소적정규모가 18평이 제안되고 있는 점<sup>13)</sup>에 비추어 보면 농가주택 규모는 협소한 상태이다.

셋째, 부엌의 구조와 설비가 비능률적이며 비위생적이다. 전통적 농가의 부엌은 흙바닥에 고저차가 있으며, 급배수설비가 없으며, 식기장과 찬장 등의 수납시설이 부족하고 부엌 일부에 뿔감을 저장하므로 주부의 노동조건으로 볼 때 비능률적이며, 음식을 다루기에 비위생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난방방식과 취사연료가 변화하면서 부엌의 시설이나 구조가 변화해서 농가주택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 부엌이지만(정문영, 1992) 37% 정도가 개량되었으며 이중 25.7%만이 완전입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sup>14)</sup>.

넷째, 변소가 멀고 구조가 비위생적이다. 전통적 농가주택에서는 대부분 변소를 헛간에 인접하여 부속사나 담밖에 설치하였으며, 분뇨를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거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 생활의식의 향상 및 공장에서 생산된 비료를 사용함에 따라 변소개량이 25.1% 되었으며 이중 32.3%가 수세식이며 나머지는 수거식 개량변소의 형태이다<sup>14)</sup>.

다섯째, 농가주택의 구조체 즉, 목구조와 흙벽체 및 초가지붕은 비내구적이며 비내화적이며 비효율적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시작되기 전의 농가주택은 흙 또는 흙벽돌 등으로 지은 불량자재주택이 73%, 초가지붕 75%, 목구조가 90%,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46.6%

12) 실태조사는 조사시기와 조사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소수의 표본수는 일반화에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비교적 최근에 조사되었으며, 표본수가 많은 논문 중심으로 종합하였다.

13) 노현선, 1989. 소규모 아파트 침실 마감재의 손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14) 농촌진흥청, 1992. 농촌주거환경 개선 발전 방향 세미나. P.7.

였다(박정훈, 1987). 지붕개량사업으로 이제 초가지붕은 합석, 스테이트, 기와지붕으로 바뀌어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며, 구조는 목구조가 많으나 1970년 이후 개량 또는 신축한 주택은 시멘트벽돌 46.3%, 붉은벽돌 47.5%로 조적조로 건축되고 있다(김동구, 1989).

여섯째,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온수공급시설 등이 미흡하다. 71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정문영, 1992) 공공상수 및 간이상수시설은 62%이나, 하수시설은 14.1%로 위생적인 측면에서 하수설비가 시급히 보급되어야 할 문제이다. 난방설비는 연료의 변화와 함께 재래식아궁이 20.1%, 연탄아궁이 12.4%, 연탄보일러 53.0%로(이정환, 1991) 변화하고 있다.

일곱째, 목욕공간이 없다. 농가에서는 여름에는 강이나 냇가에서 목욕하고 겨울에는 가마솥에 물을 끓여 큰 함지에 물을 담아 부엌등 적당한 장소에서 목욕하였다<sup>15)</sup>.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목욕실을 설치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나(29.0%) 이중 온수사용가능 농가는 56.7%이다<sup>16)</sup>.

그밖에 창문이 작아 채광 및 환기가 불충분하며, 출입구가 작아 출입이 불편하며, 방안이 어둡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농촌취락은 가족적 생계농업이 영위되던 시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1989년말 57,573개 취락이 있는데 이중 30호미만이 40%, 30~100호가 54%, 100호 이상은 6%로 소규모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하며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및 분뇨수거체계 등이 미흡하여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정환, 1991).

도시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문제도 있지만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농촌취락의 개발에는 더 많은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투자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3. 농촌주거환경의 개량방향

사회의 변화는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와 필연적으로 주거공간도 변화시킨다. 농가주택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농촌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의 과정중에 있다.

취락구조의 변화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농촌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전체사업의 일부분인 주택개량만이 눈에 두드러졌고, 취락개선이 완료된 마을에서도 생활환경의 개선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아(박병길, 1986) 취락구조의 변경방향은 분석할 수 없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한필원, 1991) 급격한 근대화과정에서 단위주택, 길, 공동시설 등의 공간요소는 비교적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전통적인 공간구조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농가주택은 지붕개량에서 취락구조개선으로 확대된 정부의 농촌주택 개량정책<sup>17)</sup>에 힘입어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거에 대한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80년대부터는 일률적인 주택개량에서 벗어나 농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량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1979년 농업 및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라 농촌생활에 알맞는 표준주택안 단층 12종, 2층 3종, 도합 15종을 권장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였으나 획일화된 평면형으로 거주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기능상으로 부적합하여(김동구, 1989), 건축과정 중에 설계변경되거나 건축 후에 증축 또는 개축이 되는 등 변화하고 있으며, 표준주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농가들도 변화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택을 변경시키고 있다.

주택을 변경 즉 증축, 개축, 신축하거나 설비를 변경한 내용을 연구한 논문을 종합해 그 흐름을

15) 최형선, 1987. 생활문화 측면의 한국주택내 생리위생공간의 변천과 전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1.

16) 농촌진흥청, 1992, 앞의 책 P.8.

17) 내무부와 농촌진흥청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농가주택 569,000동이 개량되었으며(1976~1984), 3,495마을이 취락구조개선(1976~1987)되었고, 변소가 265,000동(1980~1987) 개량되었고, 79,000호(1983~1991)가 부엌 또는 목욕실을 개량하였다(농촌진흥청, 1992, 앞의 책 P.13, P.39)



분석해 보면 크게 거주공간과 농용공간의 분리, 주택의 겹집화와 실내공간화, 주택규모의 증대와 방수의 증가, 설비의 근대화로 요약된다.

#### (1) 거주공간과 농용공간의 분리

농가에서도 점차 거주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주거의 전용화가 도모되면서 거주공간과 생산작업에 관련된 공간이 건물별로 정리되어 거주공간은 주택으로 집합하고 부속사는 주택내 별동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농업전업주택 외에는 부속사의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작업을 하던 안마당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바닥을 콘크리트하여 곡식건조장이나 소규모의 발작물을 수확, 건조, 보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외곽지대에 위치한 농촌에서는 마당이 채소밭으로 되거나 정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강영환, 1987; 이남련, 1985).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부속사 및 농작업공간은 주택외부로 분리되고, 이어 주택과 부속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의 공동단지로 형성될 것을 예측하기도 하고(최찬환, 1986), 농업의 협업화, 기계화, 상업화를 예측하며 단위주택내 개량, 몇가구별 공동연립화, 전문단지화의 단계로 가야한다고 제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택은 거주기능만 갖도록 신축하고 부속사 및 작업공간은 공동화하여 한 마을의 농가를 전체 이주시킨 취락구조개선 A형 마을에서 단위주택 내에 부속사를 다시 신축하며(이재우, 오인욱, 1983), 공동축사를 회피하고 공동마당이 변질되며(이남련, 1985), 일반 개량농가에서도 주택내에서 농작업을 회피하고(박경남, 1989) 여전히 안마당을 작업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박병길, 1986) 농작물과 영농기계의 수납을 위한 창고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농업을 하는 농가주택은 각 개인주택을 중심으로 작업공간이 펼쳐지는 가족중심의 개별영농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완전히 주택 내에서 농용공간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을 보호하면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용공간을 배치하는 방법과 함께 농민들의 사유물에 대한 의식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공동화하는 방안이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 (2) 겹집화 및 실내공간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농가주택은 一字 혹은 ㄱ字 홀집에서 一字型으로 겹집화하면서 목구조에서 흙벽돌, 시멘트벽돌, 붉은벽돌조로 구조재료가 변경되고 있다.

사랑채와 같은 별도의 거주공간이 없어지고 분산된 거주공간이 안채로 합쳐지며 마루, 부엌, 욕실이 실내공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방식 마루에는 유리문을 설치하여 내부공간화하면서 농작업, 수납기능이 퇴색하고 대사회적 생활공간으로 거실화하는 경향이다.

부엌은 주택 중 가장 많은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재래식 부엌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다기능 공간에서 단순기능화되면서 면적이 축소되어 실내공간화되면서 입식형으로 변경되고 있다. 여기에 입식가구를 도입해 식사실을 겸용하는 DK형으로 발전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식사실에 대한 요구가 우선 순위인 것을 미루어 종래 안방이나 마루에서 하던 식사행위가 부엌과 병합되어 DK형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형과 같은 입식부엌으로의 변경은 농가생활에서 좌식으로 행해지는 일부 취사행위를 수용하지 못해 상·하수도 및 가열시설과 수납시설을 갖춘 제2의 부엌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다(유옥순, 1988; 이은경, 1989; 한샘, 1990).

욕실설치 농가도 증가하며 내부공간화 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비해, 아직 변소는 주택 외부에 설치되고 있다. 초기의 주택개량과정에서 실내에 변소가 계획되었으나 악취 등의 이유로 대부분 다시 옥외부속사에 개량식변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장래 주택계획에는 대부분 수세식을 회피하므로 마을에 상·하수도시설이 완비되면 수세식으로 실내공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주택규모의 확대와 방수의 증가

주거공간 확보 요구로 주택규모가 커지면서 방의 기능분화 요구에 따라 방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 이전에 이루어진 주택변경은 주로 규모확대와 방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으며(박정훈, 1987), 표준주택안에 의해 15~18평으로 건축한 주택은 증축이 활발하며(박병길, 1986), 특히 안방의

중·개축이 활발하다. 다른 방은 침실 기능만을 갖는 대신 안방은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는데 따른 활동공간과 가구의 증가 및 수납용공간의 필요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있다(한필원, 1991).

전반적으로 식사실에 대한 요구가 크며(엄인섭, 1982; 박병길, 1986), 앞으로 다목적 생활공간으로 거실이 중요공간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김동구, 1989)되며, 수납가구 및 인체지지 가구의 소유가 증가할 것으로 미루어(김수경, 1989) 주택규모의 확장은 지속되리라 본다.

#### (4) 설비의 근대화

공공상수의 보급율은 도시에 비해 낮지만 부엌내 급·배수 설비를 하며 취사와 난방열원이 분리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취사열원으로는 나무나 연탄에서 가스나 전기로 대체 사용되며, 난방은 연탄아궁이에서 연탄보일러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생리위생공간인 욕실이 실내공간화하면서 주택 내에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 온수공급시설은 미비하나 난방방식이 중앙난방식으로 개선되면 온수공급시설은 부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본다.

변소는 수세식으로의 요구는 높으나 수세식 변소의 선행조건인 정화조시설과 하수시설의 미비로 주택의 변소를 사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설비가 근대화되고는 있지만 주택구조 및 외형의 변화속도에 비해 설비수준은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하면 농가주택은 단층의 단독주택유형으로 규모가 확대되며 거실중심으로 개실이 확보되며 설비가 근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한편 농용공간은 주거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되어 배치되고 농용공간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공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 농가주택과 비교하여 보면 채와 채로 나누어지는 전통은 주거공간이 한채로 통합되면서 사라지고 있으며, 식사, 취침, 접객 등 다용도로 사용되던 방은 방별로 용도가 고정되어 기능별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툇마루나 마루를 통해 각 실로 직접 출입하던 개방식 공간이 폐쇄식의 거실로 변용되고 있으며, 부엌 및 식사공간에 입식가구가 도입됨에 따라 좌식생활이 부분입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온돌문화는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도

입하여 보완하며 유지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농가주택의 모습은 서구화되어가는 도시주택을 답습하고 있어 변화의 속도는 늦지만 도시주택형식에 유사한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찬환, 1986). 이에따라 도시주택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생활관습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간이 농가주택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도시와는 다른 농가생활양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간문제가 중복되어 질이 다른 농가주택 문제가 부가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하게 농가생활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주거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농촌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분석하여 첫째, 시기별, 분야별로 전반적 동향을 파악하고 둘째, 연구내용을 분석하여 농촌주거환경의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셋째, 농촌주거환경의 개량방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연구의 량도 증가하고 연구대상이 세분화되고 있었다. 분야별로 보면 초기에는 민가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 이후 주택의 공간구성, 규모, 사용방법, 변경내용 등 주거계획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며, 최근에는 생활권 설정이나 마을공간분석 등 취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농촌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보다 주거단위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는 비확률표집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대상을 실측, 촬영, 관찰 스케치하고 거주자를 심층면접하는 현지조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특징을 설명·기술하거나 평균, 빈도, 백분률로 분석하였다.

(2) 전통적 농가주택은 현대의 주거에 대한 요

구를 수용하고 주거기준을 만족시키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견되는데 우선 주택 내에 농작업공간이 함께 있어 주거생활이 침해받으며, 주택규모가 작고 방수가 적으며, 목구조의 흠집은 비내구적이고 비내화적이며 좁다. 또한 부엌의 구조와 설비가 비능률적이며 비위생적이고, 변소와 욕실 등의 생리위생공간이 비위생적이고 설비수준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농가주택은 4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38.9%로 전반적으로 주거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3)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농가주택은 정부의 주택개발사업에 의해, 또는 자의로 변경되고 있는데 변경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주성의 확보를 위해 거주공간과 농용공간을 분리하여 주택내 배치하며 주택구조가 견집화하고 실내공간화하면서 주택규모가 확대되고 방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마루가 폐쇄식거실로 실내공간화하고 입식부엌과 욕실이 실내로 들어오며 방의 용도가 고정되고 기능이 분화하는 경향이 보이며 난방, 급배수 등의 설비도 근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하면 앞으로 농가주택은 단층의 단독주택유형으로 규모가 확대되며, 거실중심으로 개실이 확보되며, 설비가 근대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한편, 농용공간은 주거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되어 배치되며 농용공간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공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단위주택의 변화에 비해 취락의 생활환경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정부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농용공간을 주거와 분리하여 공동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취락을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통합하면서 복합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방향을 전망하기에는 자료나 결과가 미흡하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농촌주거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변화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들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바탕을 두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분야가 세분화되며 균형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주택의 일반적인 공간구성과 평면계획적 연구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간별로 세분화하여 연구하며 취락의 구성과 생활환경, 색채나 의장, 실내환경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택개발에 따른 자금마련, 기술자와 자재구입 등 공간 외적인 경제·정책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많은 연구에서 그 연구가 지역적·방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확대해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현상의 설명에 있지 않으며 특히 계획분야의 연구는 그 결과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연구설계와 방법론적 통제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물리적 주거공간의 내구연한은 길지만 생활의 변화는 빠르므로 주거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환경과 거주자의 주거요구수준의 변화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엌연구에서 농촌에서는 입식부엌 외의 제2의 부엌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요구가 지속적인 것인지 도시형 입식부엌이 정착되는 과도기적 요구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및 농민 그리고 농가생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4) 생활과 공간과의 대응관계를 기능과 형태적인 면에서 피상적으로 파악하므로써 대응관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응관계의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과 질서를 규명할 수 있도록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농가주택이 도시주택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론적이며 기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방향인가? 결국 농촌도 도시와 똑같은 생활양식을 갖게 되고 똑같은 생활환경을 요구할 것인가? 그렇다면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논의를 기초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의적 가정에 근거해서는 안되며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과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건축분야 외에 다양한 학문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학제간 접근이 요망된다.

## 참 고 문 헌

1. 강선중, 1984,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 방법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강영환, 1987, 한국 농촌주거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3(6).
3. 강태은, 1983,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주민 의식 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건설부, 1974, 농촌표준취락기준 설정에 관한 조사 연구.
5. 건설부, 1975, 농촌주택표준 설계도.
6. 고팡렬, 1987, 2000년대의 한국농촌주택 구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고도임, 1991, 경기도 농가 안방공간에서의 주생활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고영중, 1981,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옥외위락공간 이용과 개발의 기본방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광언, 1983, 한국의 옛집, 마당.
10. 김광언, 1988, 한국의 주거 민속지, 민음사.
11. 김동구, 1989,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과 공간활용,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김동민, 1991, 농촌의 하수처리 실태와 대책, 농촌생활과학, 12(1). 농촌진흥청.
13. 김성배, 1982, 농가의 건물 배치 및 주택 평면구성에 관한 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김수경, 1988, 서울 근교 농촌주택의 수납가구 유형 및 사용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김승수, 1975, 농촌부락의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김용미, 1984, 한국 농촌마을의 건축적 질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김용태, 1987, 한국 농촌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김장섭, 1983, 농촌 취락구조 개선을 위한 건축 계획적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영농방법 변화를 중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김정기, 1971, 한국 주거사<한국문화사 대계 IV>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20. 김정수, 1973, 농어촌 주택의 온돌의 과학화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I), 대한건축학회지 17(53).
21. 김정호, 1981, 농촌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김진일, 1980, 농촌취락과 생활공간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4(95).
23. 김홍식, 1975, 마을공간 구성방법에 대한 한국전통 건축사상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64).
24. \_\_\_\_\_, 1982, 한국민가의 유형별 분류, 건축가.
25. 김홍준, 1988, 농촌주택 개선에 따른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권건우, 1985, 한국 충청북도의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내무부, 1971, 농촌 취락구조 개선과 주택개량 방안 연구.
28. \_\_\_\_\_, 1976, 농촌주택개량 길잡이.
29. \_\_\_\_\_, 1979, 새마을 농촌주택개량.
30. 나한범, 1986, 한국 전통마을의 장소성과 그 공간 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농촌진흥청, 1970, 농촌주택 설계도집-1집.
32. 대한주택공사, 1977, 표준형 농촌주택 연구.
33. \_\_\_\_\_, 1978, 농촌주택 및 새마을회관 연구, 주택 연구소편.
34. 문석창, 1976, 우리나라 농촌주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박경란, 1989, 농촌주택과 마을에서의 생활의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박경숙, 1982, 재래농가의 가사노동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박경옥, 1987,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3).

38. \_\_\_\_\_, 1988,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I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1).
39. 박경호, 1980, 농촌에 있어서 주택 기초의 조립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박경호외 6인, 1990, 강원도 전통민가 및 취락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1).
41. 박병길, 1986, 농촌주택의 공간이용 실태와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 박병진, 1973, 농촌주택계획의 이상적인 최적규모에 관한 연구, 건축사 2월호, 대한건축사협회.
43. \_\_\_\_\_, 1975, 농촌건축의 최적 규모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 박상호, 1984, 농촌주택의 외장색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 박성준, 1986, 농촌주택의 공간구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 박순식, 1978, 농촌주택에서의 다락의 이용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박영순, 김수경, 1989, 서울근교 농촌주택의 수납가구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48. 박정훈, 1987, 농촌주택개량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9. 박태환, 1984, 한국 농촌의 주거개량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연구 보고.
50. 백영흠, 1978, 농촌주택계획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 백용규, 1985, 전통 민가의 온열환경에 관한 측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2. 서경태, 1986, 삼척 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
53. 서종태, 1985,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4. 손순채, 1983, 농촌취락구조 형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 손영미, 1985, 농촌개량주택의 가구 이용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 손장렬, 김홍석, 허정호, 1986, 조선시대 전통민가의 온열환경에 관한 측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
57. 손장렬, 안병욱, 1986, 우리나라 전통주거의 환경공학적 특성, 대한건축학회지 30(3).
58. 신영훈, 1983, 한국의 살림집 上·下, 열화당.
59. 송용호, 1980, 한국 농촌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0. 송인춘, 1981, 최근 농촌개량주택의 시설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1. 신문철, 1975, 새마을 농어촌 주택개선을 위한 난방방법, 대한건축학회지 19(62).
62. 양부흥, 1980, 한국 농어촌 주거환경 변화가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3. 양세화, 1983, 표준형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4. 양태연, 1971, 농촌주택 온돌·창호지문의 결합과 그 개조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15(41).
65. 엄인섭, 1982, 농촌개량주택의 공간활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6. 엄인섭, 김종인, 1983, 농촌개량주택의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I), 대한건축학회지 27(112).
67. \_\_\_\_\_, 1983, 농촌개량주택의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II), 대한건축학회지 27(113).
68. \_\_\_\_\_, 1989, 농촌주택의 2층화 경향과 그 실상 (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1).
69. \_\_\_\_\_, 1989, 농촌주택의 2층화 경향과 그 실상 (II), 건축학회논문집 5(4).
70. 오홍철, 1967,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1. 오인욱, 1980, 한국 농촌 취락구조 개선의 집주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2. 유옥순, 1978, 농촌주택의 부엌개량에 관한 실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3. \_\_\_\_\_, 1988, 한국 농가주택의 부엌공간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4. 유용교, 1973, 가족 구성면에서 본 농촌주택의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7(54).
75. \_\_\_\_\_, 1974, 주택의 규모면에서 본 농촌주택의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8(56).
76. \_\_\_\_\_, 1982, 농촌의 집촌화 계획에 관한 연구, 건축사 6월호.

77. \_\_\_\_\_, 1983, 한국 농촌의 정주 model의 설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 유호경, 오희선, 이호열, 1990, 경남지역 농촌의 · 식 · 주 생활양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79. 윤복자의 4인, 1991, 농촌 부업의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II), 대한가정학회지 29(3).
80. 윤재선, 1989, 농촌취락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1. 김혜경, 문수재, 윤정숙, 이영, 1990, 농가 생활 연구, 신광출판사.
82. 윤정숙, 이성우, 최병숙, 1989, 서울근교 농촌주택의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5(3).
83. 윤정숙, 1991, 농촌주택의 부분개량 모형개발연구, 농촌진흥청 연구 보고서.
84. 이진영, 1976, 농촌주택의 열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0(69).
85. 이경희, 1975, 주거 열환경이 공간사용규범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지 19(64).
86. 이경희외 3인, 1980, 농촌취락구조의 발전적 모형과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87. 이교회, 1985, 농가주택에 있어서의 주거공간과 부속사공간의 평면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8. 이규봉, 1979, 재래농가의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9. 이광노, 1977, 농촌주택의 구조적 견고성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1(77).
90. 이기석, 1967, 구읍취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 이남련, 1985, 농가주택의 작업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2. 이동락, 1987, 농촌주택 옥외 생활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3. 이만갑, 1970, 농가주택과 가족내 인간관계, 연구와 지도, 11(3), 농촌진흥청.
94. 이만갑, 1980, 한국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
95. 이명호, 1969, 우리나라 농가주택의 개량과 문제점, 연구와 지도 10권 4호, 농촌진흥청.
96. 이무진, 1977, 농촌주택구조에 따른 열관리 및 투격 현상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7. 이병근, 1983, 한국 민가의 실내음향적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8. 이상용, 1980, 농촌주택의 주거양식과 평면계획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9. 이상정, 1988, 경남지역 전통 농촌주택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1).
100. 이석배, 1983, 한국 민가의 광환경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1. 이성호, 1984, 충청남도 서부지역에 나타난 주거형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2. 이수성, 1980, 한국 농촌취락의 공간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3. 임석호, 1988, 농촌지역의 집회활동을 위한 시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4. 이유미, 1990, 서울근교 농촌주택의 의례생활로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5. 이은경, 1989, 도시화되는 농촌지역, 주택의 식사, 취사공간 사용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6. 이원, 1987, 농촌건축의 주공간과 주생활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7. 이정덕, 1977, 주택의 적정 대지면적 대한건축학회지 21(77).
108. \_\_\_\_\_, 1978, 서울근교 농촌주택 설계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2(84).
109. 이정환, 1991, 농촌생활과 주거환경, 한국농촌 생활과학회지 제 2 권.
110. 이종관, 1973, 농촌주택의 열관리 구조에 따른 계획설계와 자재개발, 건축사 5월.
111. 이종화, 1983, 농촌지역 주민의 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2. 이재우, 1983, 농촌지역에 있어서 농가주택의 공간구성에 관한 기본적 연구, 조도전대학교(日), 석사학위논문.
113. 이재우, 오인옥, 1983, 농가주택의 건축공간구성

- 과 부속사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110).
114. 이재우, 1986, 농가주택, 건우사.
  115. 임석호, 1988, 농촌지역의 집회활동을 위한 시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6. 임형애, 1982, 도시근교 농촌주택의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7. 장덕찬, 1989, 서울근교 농촌주택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8. 장명수, 유용교, 1973, 농촌취락의 최적규모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7(52).
  119. 장성준, 1983, 농촌주택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건축문화 양태, 국토계획 12(39).
  120. \_\_\_\_\_, 1978, 안동 토계동의 주택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2(81).
  121. \_\_\_\_\_, 1990, 농촌주택의 활용과 개량, 농촌생활과학 11권 2호, 농촌진흥청.
  122. 장윤용, 1981, 농촌주택의 작업공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3. 장택주, 1986, 농촌지역의 생활권 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4. 장택주, 전경배, 1991, 농촌지역에 있어서 생활권의 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3).
  125. 전경배, 1970,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4(37).
  126. \_\_\_\_\_, 1970, 농촌주택의 건축계획적인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4(38).
  127. \_\_\_\_\_, 1970, 일본의 농촌주택 개량과 한국농촌주택 개량의 방향, 연구와 지도, 11권 3호, 농촌진흥청.
  128. \_\_\_\_\_, 1974, 농촌지역의 구매시설에 관한 연구 (I), 대한건축학회지 18(57).
  129. \_\_\_\_\_, 1974, 농촌지역의 구매시설에 관한 연구 (II), 대한건축학회지 18(59).
  130. \_\_\_\_\_, 1975, 농촌건축의 연구 경향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19(64).
  131. \_\_\_\_\_, 1975, 농촌주택 및 농촌취락 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2. 정문영, 1992, 농촌주택의 부업과 목욕실 사용실태와 개량방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3. 정일영, 1965, 농촌의 조립주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65).
  134. 정정원, 1983, 농촌주거 개선사업의 건축적 평가,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5. 정혜경, 1985, 한국농촌의 주거공간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6. 조성기, 1979, 농촌자연 부락의 집락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3(88).
  137. \_\_\_\_\_, 1980, 한국민가 연구서설, 대한건축학회지 24권 93호.
  138. \_\_\_\_\_, 1983,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지 27(112).
  139. \_\_\_\_\_, 1985, 한국 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0. 조중근, 1983, 전통의식이 반영된 농촌취락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1. 조재순, 1979, 농촌 가정생활 향상에 따른 주택공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2. 조항구, 이문보, 이정덕, 1974, 농촌주택 표준구조의 활용을 위한 부품개발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8(59).
  143. 조현세, 1973, 실태조사를 통한 농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4. 주남철, 1970, 한국농촌 주택의 변천, 연구와 지도 11(3), 농촌진흥청.
  145. \_\_\_\_\_, 1973,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6. \_\_\_\_\_, 1986,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47. 주종원, 1975, 주거환경의 목표와 환경기준의 설정, 대한건축학회지 19(63).
  148. \_\_\_\_\_, 1978, 농촌취락구조 개선방안 주택 77, 대한주택공사.
  149. 지순, 1973, 농촌주택에서의 작업공간, 건축사 1월호.
  150. 지순, 윤복자, 윤정숙, 유영희, 최병숙, 1991, 농촌부업의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I),

- 대한가정학회지 29(1).
151. 최동숙, 1981, 재래주택 주민과 개량주택 주민의 주택개량에 대한 태도와 주거 만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2. 최영규, 전경배, 1991, 농촌지역에 있어서 생활권의 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3).
  153. 최병숙, 1983, 서울 근교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4. 최성형, 1983, 농촌주택의 대지면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5. 최종현, 1977, 한국 농촌취락환경에 있어서 전이공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6. 최찬환, 1972, 한국 농촌의 집락구성과 생활시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7. \_\_\_\_\_, 1980, 농촌주택개량의 문제점, 대한건축학회지 24(92).
  158. \_\_\_\_\_, 1982, 농촌주택개량에 관한 주민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26(104).
  159. \_\_\_\_\_, 1986, 한국의 농촌과 도시주거양식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0. 한기해, 1985, 한국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3(87).
  161. 한필원, 1985, 농촌지역 농가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2. \_\_\_\_\_, 1991, 농촌 동족마을 공간구조의 특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3. 한필원, 이광노, 1990, 농촌마을에서 길의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2).
  164. \_\_\_\_\_, 1990, 농촌마을 공간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3).
  165. 한샘, 1987, 농촌주거환경 조사보고서,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66. 한샘, 1990, 농촌부엌의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 I ), 연세대학교 생화학연구소.
  167. 함경렬, 1982, 농촌주택 및 부속사에 관한 조사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8. 허복, 1974, 도시 및 농촌주택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9. 허정호, 1985, 조선시대 전통민가의 온열환경에 관한 측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0. 황종대, 1973, 우리나라 농촌주택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